

F1경주장 건설비 4천억 넘을 듯

짚은 공정 추가·공사 지연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10~20% 늘어

국비집행 감사 등 철저한 검증 필요

영암의 F1경주장 건설비용이 짚은 공정 추가와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10~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와 시공사인 SK건설 등에 따르면 F1경주장 건설비용은 순수 공사비 2900억원, 부지매입 350억원, 설계비 등 150억원을 포함해 총 3400억원이다.

시행사는 카보(KAVO)가, 시공사는 SK건설이 맡았으며 총 사업비 3400억원 중 1760억원은 국·도비로, 나머지 1760억원은 민자사업비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비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제 경주장 사업비는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장 건설사업 비용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연약지반 개량사업은 약 1000억원이 투입돼 예상사업비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킷포장과 그랜드스탠드, 패독, 안전시설물 설치, 가설스탠드 등 구조물 공사는 착공 이후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다.

특히 설계상 사업비가 355억원인 가설스탠드의 경우 파이프를 지반에 고정시키기 위한 암반처리 작업과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수작업이 국내산보다 2배 이상 들어가는 수입자재를 쓰면서 인건비 등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계비용 413억원의 서킷포장과 안

전설비도 국제자동차연맹(FIA)이 각종 규정을 근거로 설계에 없는 추가공정을 요청하거나 검수를 이유로 긴급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도 사업비가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증

액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시공사측은 10% 정도, 전남도는 20%에서 최고 30%까지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총 사업비는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인 카보측은 관련 내용을 아직 파악하기 힘들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연말 이전까지는 사업비 정산을 통해 사업비 증액규모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카보 자체 회계 감사와는 별도로 국·

도비 176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 관계자는 “원래 설계에 없던 새로운 필수작업들이 추가돼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회계감사를 해야만 정확한 사업비 증액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최초로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치른 영암군 삼호읍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과 진입도로. 짚은 공정 추가와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10~20%가량 늘어날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져 증액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영조 KAVO 회장

“국제자동차연맹(FIA) 사람들이 최근 10년 만에 나온 명승부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정영조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회장(사진)은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인 KAVO 회장을 겸하고 있는 정 회장은 24일 3일간의 대회를 마친후 영암 서킷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컸다. 처음 경기가 한 차례 중단되고 나서 사실은 9바퀴까지만 돌고 레이스를 끝내야겠다. 그래도 랩킹 포인트 절반은 나온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날씨도 좋지 않고 교통도 불편한 가운데 8만 명이 넘는 팬들이 찾아주

“영암 레이스 최근 10년만에 가장 재미있는 경기”

“비로 경기 중단될때 9바퀴만 돌고 끝내지는 의견도”

섰는데 겨우 9바퀴만 세이프티 카 상황에서 서 돌다가 경기가 끝나면 이분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F1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도 다행히 레이스가 재미있게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25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다. 불의의 사고로 레이스를 중단도 포기한 선수들에게는 안된 말이지만 FIA 사람들이 ‘최근 10년간 가장 재미있는 경기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날 시즌 순위에서 1위를 달리던 마크

웨버(호주)와 전제 55바퀴 가운데 45바퀴를 선두로 달린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모두 중도에 사고로 레이스를 포기한 가운데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가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또 레이스 시작 이후 2시간이 넘으면 안 되는 F1에서 보기 드물게 우승자의 기록이 2시간48분을 넘는 진기록도 나왔다.

호주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정 회장은 “(호주 출신인) 웨버가 우승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해 속은 상하다”면서도 “그래



도 너무 재미있는 대회로 끝나 기쁘다. 사흘 밤을 굶었는데 아까 알론소에게 샴페인 두잔을 받아 마셨더니 얼떨떨하다”며 웃었다.

정 회장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경기장도 손을 봐가 다듬을 점이 있고 교통이나 숙박은 훨씬 더 좋아져야 한다”며 “내년 대회를 앞두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실업·고용률 동시저조 왜?

산출 기준 차이·일자리 없어 취업 포기자 많기 때문

광주지역 실업률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용률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저조하다. 실업자 수도 적지만 취업자 수도 적다는 의미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최근 이 같은 통계가 나오자 그 배경과 원인 분석, 대책 수립을 지시할 정도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낮은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 이유는 뭘까.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지역 고용률은 53.1%, 지역실업률은 2.8%였다. 고용률은 전국 평균 59.1%에 비해 무려 6%가, 7개 특별·광역시 평균 57.8%보다 4.7%가 낮다. 광주시민 100명 중 53명 정도가 직장을 갖고 있지만, 전국 평균적으로 59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률 역시 전국 평균인 3.4%보다 0.6%, 7개 특별·광역시 평균 4.0%보다 1.2%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통계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산출하는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과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률은 기본적인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실업률은 매달 15일이 끼어있는 1주일을 기준으로 과거 4주간 이력서 제출이나 업체 방문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1주간 1시간이라도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낮은 것은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을 위한 지역 내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취업을 위해 외지로 빠져나가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하락하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친환경 제품 전국 웨미리마트서 판매

지역제품 판로 확대 업무협약

전남지역 친환경 제품이 전국 5200여개 ‘웨미리마트’ 매장에서 판매된다.

전남도는 25일 오전 박준영 지사와 백정기(주)보광웨미리마트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 5200여 웨미리마트 점포에서 ▲전남 지역제품 판매 ▲지역 특화 상품 판로개척 지원 ▲지역 관광문화 행사 안내 및 도정 홍보 등 지역 밀착형 서비스가 이뤄진다.

편의점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웨미리마트는 2008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

울시, 인천시와 판매 제휴를 시작했고 이번에 전남도까지 지역제품 판매 유통망을 넓혔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업체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실제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스터 게시 및 티켓 판매를 한 결과 높은 홍보 효과를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보성녹차와 담양 딸기농가를 웨미리마트에서 살 수 있다”며 “편의점 입점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지역 특화 상품을 발굴해 소포장 디자인과 위생검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李 대통령 “국가대사 G20 위해 힘 모아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다음달 서울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에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회의 개최를 통해 직접적 경제 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긍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이 강한 시장이다.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습과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0월 27일 서구청장재선거

당신의 생각 투표로 말하세요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관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19세부터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991년 10월 28일 이전 출생자)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꼼꼼히 따져 보세요

서구선거관리위원회